"어업인 힘내세요" 수협 지원 늘린다

전남본부, 정책보험료 대상 늘리고 지원 금액 상향
방사능 정밀검사 확대…어업인 지원 특별법 건의도

수협 전남본부가 다양한 정책으로 어업인 돕기에 나선다.

수협 전남본부는 소득 감소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시름에 빠진 어민들을 돕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특히 전남도의 지원을 받아 어업인들이 부담을 느끼는 정책보험료 대상 범위를 넓히고 지원 금액도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어업인들의 고충해소에도 속도를 낸다.

11일 수협 전남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전남도와 함께 이달부터 수산정책보험(어선원·어선·어업인 안전)의 지방비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어선원보험의 경우 그동안 100t 미만 선박에만 보험료 지원이 돼왔는데, 이달부터 100t 이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됐다. 전남도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 어선이라면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의 10~4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기존 10t 미만 선박에만 35%가 지원됐던 어선보험 자부담보험료가 7월부터 20t 미만(10t~20t) 선박 25%, 20t 이상 5%의 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이로써 사실상 전남지역 모든 선박이 어선보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어업 활동 중에 발생하는 재해와 관련해 보장 혜택이 가장 큰 어업인 안전보험도 예산이 증액돼 가입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달부터 정책보험 지방비 지원 방식이 후(後)정산에서 선(先)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험 가입률 증가로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전남도의 어업인 정책보험 지방비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도 어업인 정책보험 지원금은 지난 2019년 77억원에서 2021년 80억원, 올해 122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어업인들은 어획량 감소에 따른 소득 감소 등으로 보험료 납부에 큰 부담을 느껴, 가입을 주저해 왔는데 수협은 이번 결정으로 어업인들의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협 전남본부는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사능 분야 공인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하고, 방사능 정밀검사 수요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정밀검사를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 판매가 감소할 것을 우려해 소비가 위축되거나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 품목에 대한 판촉 활동을 강화한다. 또 수산물 이력제 품목을 기존 2종에서 오징어, 고등어, 갈치 등을 포함한 5개로 확대한다.

또 오는 8월 소비위축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주홍보 수협중앙회 전남본부 본부장은 "어업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유가 및 원자재, 인건비 상승에 따른 출어경비 급증과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이슈로 수산물 소비 급감으로 어업경영에 3중고를 격고 있다"며 "넉넉하지 않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예산증액 및 지원대상 확대에 힘써주신 전라남도 농수산위 위원님들과 해양수산국 수산행정 담당자분께 전남관내 어업인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회원조합과 함께 적극적인 정책보험 가입 홍보를 통해 어업 활동 등과 관련한 재해사고 시 조속한 어업경영 복귀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귀뚜라미 김학수 대표이사 선임

귀뚜라미는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김학수〈사진〉 해외영업본부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신임 대표는 지난 2021년 1월 해외영업본부장으로 부임해 북미지역 신제품 출시, 러시아 법인 설립, 중국 법인 안정화를 맡아 왔다.

김 대표는 지난 1994년 대우전자에 입사해 폴란드, 독일, 이탈리아, 미국, 중국 등 각지에서 30년간 일했고 대우전자 유럽본부 최고재무책임자(CFO), 경동나비엔 미국 법인장과 중국법인 총경리를 맡았다.

김 대표는 "국가별 시장의 판세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확한 데이터 수집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판단의 정확도를 높여나가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가상자산 발행·보유기업, 내년부터 재무제표 의무 공시

금융위,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침 마련·기준서 개정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은 관련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관련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 관련 거래 유형별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제정하고,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주석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회계 기준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은 가상자산 관련 일부 정보가 백서에 공개돼 있어도 이용자들이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가상자산 개발·발행 회사는 해당 가상자산의 수량·특성과 이를 활용한 사업모형 등 일반 정보를 포함해 가상자산의 매각 대가에 대한 수익인식 등 회계정책과 그에 대한 회사의 판단까지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발행 후 자체 유보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보유 정보 및 사용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발행한 주요 5개 상장사(카카오, 위메이드, 넷마블, 네오위즈홀딩스, 다날)가 해외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주요 가상자산은 총 10종이다.

작년까지 유상매각한 가상자산은 8종(총 7980억원)이었고, 유상매각 후 수익을 인식한 금액은 3건(총 1126억원)이었다.

발행 후 유통되지 않은 내부 유보 물량은 254억개로 발행물량의 81.7% 수준이다.

투자목적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사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분류기준에 대한 회계정책, 회사가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사업보고서 기준 30여개 회사가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장사가 보유한 제3자 발행 가상자산의 시장가치는 2010억원 수준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그동안 고객 위탁 가상자산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의 물량과 시장가치 등의 정보를 가상자산별로 공시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해킹 등 물리적 위험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 수준 등에 대한 정보도 같이 제공해야 한다.

주석공시 의무화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르면 내년 분·반기 재무제표를 통해 비교 표시되는 2023년에 대한 주석공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추진한 광주AI창업캠프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김창기(왼쪽 6번째) 국세청장과 양동구(왼쪽 1번째) 광주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광주지역 AI 관련 기업 대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 광주AI창업캠프 현장 소통 간담회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1일 광주AI창업캠프에서 인공지능(AI) 분야 창업기업 대표들을 만나 현장의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에서 디지털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수출·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메타버스와 음악 플랫폼, 생체정보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기업이 참석, 창업캠프 입주기업이 개발한 인공지능 제품을 시연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AI 분야 기업 대표들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벤처기업 개인 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들은 적극 검토해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 분야 기업들이 세액공제·감면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 감면 컨설팅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당부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

'썸머킹 햇사과' 드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지하 1층 청과매장에서 햇사과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점은 연중 가장 먼저 출하되는 '썸머킹 햇사과'를 선보인다. 썸머킹 사과는 국산 품종 여름 사과로 새콤달콤한 풍부한 과즙과 단단한 과육이 장점이다. 여름사과 특유의 산미를 품은 맛과 향이 뛰어난 사과로 광주점에서는 썸머킹 햇사과를 3개에 1만1000원에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학점 반영"

전남농협-무안군-초당대 협약

전남농협이 무안군과 초당대와 손 잡고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농촌 일손돕기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는 11일 초당대학교에서 무안군과 초당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생 농촌봉사활동을 학점 이수 과정으로 반영하는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

초당대는 학생들이 '사회봉사' 교과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농촌봉사활동을 해당 교과목 이수 활동으로 인정해 부족한 농촌 일손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무안군에 소재한 초당대와 전남농협이 관내 농업인 영농지원활동에 앞장 서줘 너무 감사하다" 며 "농촌봉사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은 "영농 인력지원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 기부를 통해 무안군 관내 농업인과 농촌 복지 향상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박종탁 본부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학생들에게 농촌의 소중함과 생명산업인 농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협은행,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출시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 등 변동금리…최대 1.3%p 금리 우대

NH농협은행은 만기 50년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채움고정금리모기지론(50년 혼합형)'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초 5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한 뒤 이후 월중 신규 코픽스(Cofix) 6개월 기준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된다.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0.10%포인트), 농업인(0.10%포인트),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0.10%포인트) 등 조건에 따라 최대 1.30%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앞서 Sh수협은행이 지난 1월 은행권 최초로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Sh으뜸모기지론, 바다사랑대출의 최장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했고, 하나은행도 지난 7일부터 주요 주담대 상품 최장 만기를 50년으로 늘렸다.

은행권의 주담대 만기 확대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대출 기간이 늘어나면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줄일 수 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여유 있는 상환기간과 청년·농업인 특화 우대금리 혜택을 드리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로 주거 안정성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62.49(+41.79)
↑	코스닥	878.73(+18.38)
↓	금리(국고채 3년)	3.703(-0.092)
↓	환율(USD)	1293.70(-12.80)